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KYUNG HEE DENTAL SCHOOL NEWS LETTER

HELPERS

VOL.4. 2013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Vision

- 02 HELPERS 비전과 목표
- 03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NEWS

- 04 학교 소식
- 06 교실 소식
- 08 동아리 소식

FOCUS

- 10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수
- 12 미국 조지아텍 해외 연수
- 14 알라바마 주립대학 장기 연수

INTERVIEW

- 16 권영혁 명예교수님
- 17 김여감 명예교수님

FOCUS

- 20 교실 탐방
- 22 문화 탐방

PEOPLE

- 22 발전기금과 동문 소식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기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의사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의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 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슬기를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사랑과 신뢰를 받고 명문으로 인정받는 대학

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여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할 것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준봉 원장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HELPERS 4호가 발간되어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치과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뭇잎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층 더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양질의 치과의료인 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후마니타스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과 봉사 그리고 연구부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은 실력과 열정이 풍부한 교수들이 충원되어 기초학문과 임상실습지도의 질이 높아져 우수한 인재 양성의 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탁월한 연구 능력 덕분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수가 급증하여 의약계열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을 얻었습니다. 70억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를 비롯한 여러 연구비를 수주함으로써 향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과거 무한 경쟁의 시대 차원을 넘어 대학의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까지 감당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수년 동안 진행되어 이제 명실공히 명문대학으로 변모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치과대학으로의 교육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이 변화가 단순한 과거로의 환원이 아니라 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여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명문으로 인정받는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의 목표의식과 단합된 마음과 동문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2월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준봉

2012년 2학기 외래교원 위촉

2012학년도 2학기 외래교수 137명을 신규 위촉했다. 원내생에 대한 강의와 임상 실습지도 및 본원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외래교원으로 위촉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이다.

2012년 2학기 교원 인사

■ 승진

치과보존학교실 박상혁 명 : 교수
 소아치과학교실 박재홍 명 : 교수
 치과약리 및 독성학교실 이현우 명 : 교수
 치과보철학교실 배아란 명 : 부교수
 악안면생체공학학교실 이상천 명 : 부교수

■ 재임용

치과교정학교실 김성훈 부교수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이덕원 조교수
 최병준 조교수

■ 해외장기연수 복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권용대 부교수
 치과보철학교실 이석원 부교수

■ 해외장기연수 발령

소아치과학교실 최성철 부교수

원내생 종합진료실 교육환경 개선 기념식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원내생의 원활한 임상실습과 내원환자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진료실의 유닛체어 교체 및 리모델링을 기념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기념식



종합진료실의 유닛체어 교체 및 리모델링을 기념하기위한 교육환경 개선 기념식.

을 2012년 9월 7일(금)에 가졌다.

이 기념식에는 조인원 총장, 유명철 의무부총장, 박준봉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나금균 치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회장, 박능석 치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 총무이사과 유닛체어를 기증한 최대균 동문 등을 비롯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생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종합진료실의 환경 개선을 계기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의 임상진료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의사 양성'에 힘쓸 것이다.

국가고시



제6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2013년 1월 18일 광장중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번 국가시험에 우리 치전원은 졸업생 2명 포함 81명이 응시하여 80명이 합격, 98.8%의 합격률을 기록하여 전국 전체 합격률 94.1%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후쿠오카 치과대학 학술대회 참석

2012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구강해부조직학교실의 주성

숙 조교수가 우리학교와 자매결연대학 중 하나인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는 강연 뿐만 아니라 4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으며 후쿠오카 치과대학 종합병원 미치 노인센터도 방문하였다.

학위수여식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3년 2월 20일 치의학관 105호(교수회의실) 및 평화의 전당에서 치러졌다. 이날 79명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총장상 이윤주, 대학원장상 구은진, 경희의료원 치과병원장상 강지인, 강동경희대병원 치과병원장상 박영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 박다정, 동창회장상 이원준, 서울치과의사협회장상 노상규 등 교내 및 외부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에 대한 시상도 열렸다.

신입생 노력봉사 및 오리엔테이션



2011년에 맺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의 MOU 체결의 후속 조치로 2013학년도 신입생 80명의 노력봉사를 2013년 2월 20일 금천, 동작, 성동, 성가정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21일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2013학년도 신입생 80명에 대한 입학허가와 함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소개를 하였다. 이후에는 충주 컨설팅 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준봉 대학원장을 비롯

하여 주요 보직교수와 함께 1학년의 담임교수도 참가하여 신입생들에게 경희인으로서의 애교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오 교수 훈장 수여



2012년 8월 31일부로 정년퇴임한 악안면조직재생학교실의 조재오 교수에 대한 녹조근정훈장 수여식이 2012년 10월 4일 대학원장실에서 열렸다. 조재오 교수는 1973년에 1기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재직하였으며 조선대 치과대학 학장 및 조선대 치과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하여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신규 임용

치주과학교실 신승윤 명 : 부교수
 악안면생체공학학교실 이재형 명 : 조교수
 문지희 명 : 조교수
 치과보존학교실 장석우 명 : 조교수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오주영 명 : 조교수
 치과교정학교실 안효원 명 : 조교수

2013년 3월 1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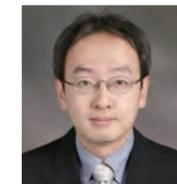
신승윤 부교수



이재형 조교수



문지희 조교수



장석우 조교수



오주영 조교수



안효원 조교수

치과교정학 교실

- 2012년 9월 19~23일 박영국 교수, 양동민, 정우영, 여립 선생이 북경에서 열린 제14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dentofacial development & function 학회에 참석했다. 박영국 교수가 “Corticision”,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to accelerate tooth movement’를 주제로 강연했다.
- 2012년 11월 1~3일 대한치과교정학회 제45회 학술대회에서 박기호 교수는 신인학술상을 수상했다. 박영국 교수는 ‘Corticision and possibilities to reduce treatment duration and need for compliance’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 2013년 1월 26일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열린 38회 Annual USC international periodontal and implant symposium에서 김성훈 교수는 ‘New advances in corticotomy-assisted TSAD orthodontics’에 대해 강연했다.

영상치의학 교실

- 2012년 9월 14~16일 중국 Xian에서 열린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 아시아 학회에 김규태 교수와 최윤주 선생이 참석하였다.(김규태 교수 포스터 발표 / 최윤주 선생 구연 발표)
- 2012년 10월 20일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단국대에서 있었다.(최윤주 선생 구연 발표 및 학술상 수상)

치주과학 교실

- 2012년 10월 8일 정중혁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과장으로 취임했다.
- 2012년 10월 11일~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 2012에 신승일 교수, 김동희, 박병규 선생이 참가했다.
- 2012년 11월 24~25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2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전 의국원이 참가하였고, 권영혁 교수가 정년기념 강연을 하였다.
- 2013년 2월 28일 권영혁 교수가 정년 퇴임하였다.

소아치과학 교실

- 2012년 9월 28~30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일본 장애인 치과 학회에 김광철 교수, 이수언, 남용혁 선생이 참석하였다.
- 2012년 10월 26~27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소아치과 추계학

- 회에 참석하였다.(정지현, 김미선 선생 구연 발표)
- 2012년 10월 29일 김광철 교수가 서울시 봉사상을 수상했다.

치과보존학 교실

- 2012년 9월 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접착치의학회에 참석했으며, 김덕수 교수가 ‘Universal Bonding: 상아질접착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했다.
- 2012년 9월 19~21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재료학회에 김선영 교수, 이지혜·장우정 선생이 참석했다.
- 2012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 개원 41주년 기념식에서 김선영 교수가 경희의학상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치과보철학 교실

- 2012년 9월 28일~30일 이성복 교수가 ‘제29차 일본 장애자의학회의 ‘고령·장애인 치과치료’에서 보철치과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2012년 10월 20일 권공록 교수가 대한 스포츠 치의학회 연수회를 개최했다.
- 2012년 10월 29일 이성복 교수가 ITI(국제임플란트학자회의) 호주 멜버른 지부의 요청으로 ‘A smart work with CAD/CAM implant dentistry’, ‘Universal design for elderly-disabled patients in dentistry’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2년 12월 3일 김형섭 교수의 보철과장 취임식이 열렸다.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 2012년 9월 11~15일 European association for Cranio-Maxillo-Facial surgery 주최로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XXI congress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Cranio-Maxillo-Facial surgery에 참석했다. (이백수 교수, 김홍순/윤선웅 선생)
- 2012년 11월 1~3일 2012 제51회 대한구강악안면성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류동목 교수 공로상 수상), (설동주, 송찬중, 문창식, 정해원, 조병용, 김지영 선생 포스터 발표)
- 2013년 2월 16일 김여갑 교수 퇴임연이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있었다.
- 2013년 2월 권용대 교수가 Stanford University 교환교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 2012년 9월 3일 어규식 교수가 부교수로 취임했다.
- 2012년 11월 3일 EBS ‘명의’에 홍정표 교수가 출연하여 턱관절 질환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 2012년 11월 21일 어규식 교수가 안면통증·구강내과학과장으로 취임하였다.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 김정희 교수가 중앙약사심위원회의 전문가로 위촉되었고, 2012년 11월 독일 Düsseldorf에서 개최된 Medica Conference에 참석했다.
- 2012년 11월 대한구강생물학회 “Integration of autophagy with cellular energy-sensing mechanism”, 발표(김정목교수) 및 대한기초치의학회 “Reciprocal regulation of autophagy initiating ULK1 kinase by AMPK and mTOR”, 포스터 발표(김정희·김정목 교수)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 2013년 1월 김정희·김정목 교수 Cell 논문 발표.
-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세포재생 기술개발사업에 선정.

예방·사회치과학교실

- 박용덕 교수가 2013년 2월 경희대학교 의학지부 교수의회 감사로 선출(2013. 3~2015. 2)
- 대외활동으로 식약청의 미래발전의약외품협의체 자문위원(2013.2~2014.1)

치과약리 및 독성학교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 평가위원(2013.4~) (김성진 교수)
-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Functional Food Ingredients and Nutraceuticals in Chronic Disease: Science and Practice”에서 논문 발표(2012. 11.29~12.1 Dallas, Texas) (김성진 교수)

악안면조직재생학(생리학교실)

- 이수정 교수 “Optogenetically induced sleep spindle rhythms alter sleep architecture in mice”(PNAS, 11

- December, 109:50, 2012) (IF=9.68) 국제 SCI 논문 발표 (2012년 12월 11일 게재)
- 노대현 교수 “Antinociceptive Effect of Cyperi rhizoma and Corydalis tuber Extracts on Neuropathic Pain in Rats” (Korean J Physiol Pharmacol) (IF=0.964) 국제 SCIE 논문 발표 (2012년 12월 10일 게재)

악안면조직재생학(병리학교실)

- 김은철 교수는 Cytoprotective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melatonin in hydrogen peroxide-stimulated CHON-001 human chondrocyte cell line and rabbit model of osteoarthritis via the SIRT1 pathway (J Pineal Res)의 국제 SCI 11편을 발표했다.
- 김은철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사업에서 ‘치계세포의 분화 및 염증반응에서 PIN1의 역할규명 및 억제물질 발굴’ 등 2개의 과제를 통해 1억 8천 1백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argeted drug delivery to tumors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및 Hydrogels for delivery of bioactive agents: a historical perspective(Advanced Drug Delivery Reviews) 의 국제 SCI 15 편과 SCIE 2편을 발표하였다.
- 중국 광저우 BIT 5th Annual Congress of Regenerative Medicine & Stem Cell 학회(2012.12.2~4)에서 Wnt/beta-catenin signaling in stem cell fate 구두발표 및 총 5건 발표
- 한국연구재단 MRC 과제 ‘나노융합 생체소재 기반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 및 지식경제부 “CAD/CAM 기술을 이용한 비침습적 맞춤형 골증대술 소재 개발” 등 총 8개의 연구과제에서 총 11억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구강해부조직학교실

- 동경의과치과대학 Yoshiro Takano 교수 초청 특별강연
- 동경의과치과공동연구 교류 (주성숙 교수) 2013.2.8~2.15
- 후쿠오카 치과대학 40주년기념 학술대회 주성숙 교수 발표
-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Dentogingival Junction」(2012. 11. 18)
- 기초치의학 종합학술대회(대회장 신제원 교수) 2012. 11.22~24.

축구부 KHDS



축구동아리 KHDS입니다. 올 2월에 있었던 졸업식 사진입니다. 축구부 가족들이 모여서 졸업하는 축구부 선배님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언제 봐도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축구부, 올 한해도 작년처럼 축구와 즐거움 모두 갖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구부 화이팅!!

통기타동아리 애아라시



2월 21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공연을 위해 하나가 된 애아라시!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payphone, officially missing you, just a feeling, 네온사인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였는데 호응이 절로 나오는 공연이었습니다. 애아라시는 오티에 이어 바로 양평으로 뮤직캠프를 떠났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MT를 보냈고, 많은 OB선배님, YB 선배님들께서도 오셔서 기타와 음악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래식기타동아리 덴탈 스트링스



클래식 기타동아리 Dental Strings는 겨울 방학 기간 중 꾸준한 연습을 하여 자체

품평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한 결과, 연주 실력이 한층 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원들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꾸준히 클래식 기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배님의 병원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머지 않아 열게 될 저희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료봉사동아리 의료연구회



저희 의연의 활동으로는 정기진료, 정기총회, 정기교육, 감보디아 해외진료봉사, 국내 장기진료봉사, MT, 졸업생환송회, 선배님 치과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OB, YB가 정을 나누고 선배님들께 좋은 말씀도 듣는 교육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끈끈하고 정이 넘치는 동아리이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

밴드부 몰라스



몰라스는 이번 겨울방학 신입생 오티 공연에 참여하고, 겨울 MT를 다녀왔습니다. 오티 공연에는 2학년과 3학년이 한 팀을 구성하여 참여했는데, 오랜만에 신나는 공연이었습니다. MT에 가면 제대로 노는 몰라스! 이번에는 2박 3일 겨울 MT를 다녀왔습니다. OB선배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북 따윈 없는 불북불북 게임, 윗놀이의 7윗 사태, 회장 취임식 등등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았던 즐거운 몰라스 MT였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WBM(Will Be a Man)



방학 동안 24기 이정우 선배님, 31기 최윤모 선배님, 39기 조규민 선배님 병원을 방문하였고, 1월 31일~2월 3일 동안 경기도 포천 영북에서 장기진료를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인 최경규 교수님과 박재홍 교수님을 비롯해 31기 최윤모 선배님, 41기 선배님들께서 지도치과외사로 참여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졸업한 41기 선배님들께서 전부 방문하여 동아리에 대한 41기의 애정을 몸소 후배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B.M. 초대회장이자 前 지도교수님인 1기 김여갑 교수님의 퇴임식이 2월에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D.O.



D.O.는 지난 2월 41기 졸업생 환송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41기 선배님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D.O.인 만큼 졸업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의 두근두근한 마음을 함께하고자 저희도 겨울방학 내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광해 OST, 펑권이 떠오르는 '스케이터스 왈츠' 등등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익숙한 곡들로 풍성하게 장식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 공연, 다들 어떠셨나요? 2013년 한 해도 신나고 재미있는 곡들로 연습하는 D.O.가 되려고 합니다. D.O. 파이팅!

진료봉사동아리 MS



MS는 격주 일요일 오후 2시~5시 가산디지털단지 근처의 한중사랑교회에서 진료봉사를 했습니다. 또 1월 19~20일 서산청년회의소와 협약해 충남 서산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겨울장기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학/치의학/약학/간호/치위생/lab(검사) 여섯 파트 연합동아리로서 약 35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진료뿐 아니라 동아리원 간의 친목을 위해 학기 중, 방학 중에 모임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구부 UNIT



농구부(UNIT)는 이번 2학기 때 포천으로 1박 2일 가을 MT를 다녀왔습니다. 학기 중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후배 간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친목을 돈독히 했고, 각종 게임을 통해 쉼 없이 웃고 돌아왔습니다. 농구부는 농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함께할 가족 같은 선후배와 함께 웃고 즐기는 거랍니다!!

야구부 덴탈 에이스



9월 어느 날씨 좋은 날 OB선배님들과 시합(OB:YB전)을 가지며 2학기 season open을 하였고 전남 화순에서 조선치대와 정기교류전(경조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내 대회인 고향제전에 참가해 덴탈 에이스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방학 중에는 별도 행사가 없었지만, 팀워크와 실력을 쌓기 위해 팀 훈련을 5회 정도 실시하였고, 4학년 선배님들을 위해 국시용원과 졸업생 환송회를 하였습니다.

진료학술봉사동아리 CDSA



CDSA는 방학 동안 선배님 병원을 방문하고, 1월 30일~2월 3일 겨울 장기 진료 및 MT를 다녀왔습니다. 지도치과외사로 구강외과 이채윤, 교정과 이승훈 선생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장기진료지로 방문한 과주 '늘푸른 자활의 집'에 계신 분들 중에는 치과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여서 다른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진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마지막 날에는 구강외과 이백수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이번에 졸업하신 4학년 선배님들께 기념패를 전달하는 졸업생 환송회도 하였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KODA



우리는 지난 겨울방학 두 달 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료인으로 살아가며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자부심과 그에 따르는 의무와 애로사항들을

들으며 우리 앞에 다가올 멀지 않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치과외사로서의 삶이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둘러싸인 오늘날, 선배님들께선 우려 섞인 좌절감보단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모두 힘냅시다! 코다 파이팅!!!

테니스 동아리 Y.D.T.C.



Y.D.T.C.는 10월에 서울대, 연세대와 교류전을 하였습니다. 테니스 경기의 승패보다는 함께 운동을 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2월 12~15일에는 겨울방학 동안 움츠렸던 몸을 깨우고 겨울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 중에 선배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테니스를 치고 재밌는 뒤풀이 시간도 가지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실력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구부 NET



경희치대 배구부 NET은 2012년도 하반기 때 정기훈련을 통한 실력향상에 매진하였고, 타 대학과의 교류를 늘려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시즌오픈과 시즌오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국시용원을 통해 선배님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엔 졸업생 환송회와 지도 교수님인 최성철 교수님의 장기연수 환송회를 함께 치렀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수를 다녀와서



스탠퍼드 대학의 전경과 스탠퍼드 대학의 교표(오른쪽).

미국 팔로 알토 지역에 자리잡은 스탠퍼드 대학은 캘리포니아의 명문 사립대로서 몇 년 전 인기가수 타블로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학교이다. 릴랜드 스탠퍼드(Leland Stanford)가 토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팔로알토 말 목장 (Palo Alto Stock Farm)을 설립하였으며, 곧이어 인근에 있는 토지를 더 사들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거대한 말 목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거대한 말 목장이 오늘날의 스탠퍼드 대학의 캠퍼스가 되었다. 스탠퍼드의 외아들인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Leland Stanford, Jr.)는 10대 때 여행 중에 장티푸스로 사망했고 스탠퍼드는 그의 아들을 기리기 위해 팔로 알토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게 된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은 별도로 시로 지정되어 대학 하나가 독립적인 시로 되어 있다.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은 곳으로 구글,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이 주변에 즐비하며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오는 다른 분들도 많았던 것 같다.

이메일로 연수 방문을 허락받은 이후, Skype면접까지 거치면서 여러 과정 끝에 미국에 도착하여 시작한 연수 생활의 시작은 만만치 않았다. 가족들과 동행한 탓에 가급적 정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도착 일주일만에 몸살이 나기도 하였다. 나를 초청해주신 분은 성형외과 교실의 MD, DDS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독일 출신의 Dr. Sabine Girod이다. 독일 유학시절 때의 선생님과 어느 정도 아는 관계여서 아마 내 일정에 맞춰주면서 연수를 허락해주셨다.

대학이라고 하기엔 매우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은 학교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원지와 같은 느낌이며 캘리포니아의 맑은 날씨가 이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았다(관광버스가 매일같이 중국 관광객들을 실어 나

르고 있었다). 아이비리그가 부럽지 않은 미국 최고 명문 사립대에서 느낄 수 있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함께 캘리포니아 특유의 자유로움이 어우러진 곳으로 학교의 모토 역시 Die Luft der Freiheit weht.(자유의 바람이 분다)으로써 스탠퍼드의 자유로운 학풍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 학교의 모토가 왜 독일어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Dr. Girod가 참석하는 Craniofacial clinic의 session과 악교정 수술등을 참관할 수 있었다. 한 명의 환자를 보기 위해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구강외과, 교정과, 일반치과, 언어치료사 그리고 종종 심리상담사와 유전학전공 의사가까지 클리닉에 참가한다. 한 환자를 두고 의사들 대여섯 명이 번갈아 보고 세션 종료후에는 환자 리뷰를 위한 간단한 회의를 점심과 함께한다. 환자를 많이 보기 위한 우리나라 진료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이후 공대와 의대가 함께 밀접히 연구하는 Biorobotics laboratory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Prof. Salisbury라는 분이 주임교수로 있는 곳으로 이분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다빈치 로봇을 만든 주요 인물 중 한 분이다. 이곳에서 주로 안면부외상환자 3차원 시물레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자문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실패했지만 임플란트 수술 시물레이션에 관한 연구비를 지원했었다). 내겐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힘든 면이 많았지만 새로운 분야를 봄으로써 치의학 교육에 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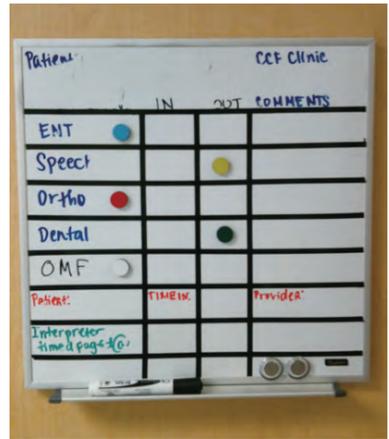
그외 스탠퍼드 의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인 수면장애센터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사실 연수 시작 전부터 수면장애센터에 가고자 이미 의견을 밝힌 뒤라 사실상 연수기간의 많은 부분을 이곳에 할애하게 되었다. 스탠퍼드의 수면장애센터는 수면의학의 메카와 같은 곳으로 전세계로부터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이곳에서 배우고자 연수를 오는 사람들이 많다. 외국에서 온 치과 의사 출신은 내가 처음이라고 하였다.

수면의학의 대가인 Dr. Guilleminault 교수가 이끄는 이곳은 수면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 나는 이곳의 ENT출신의 Sleep surgeon인 Dr. Capasso의 진료를 주로 참관하며 스탠퍼드 수면센터 출신의 Dr. Riley와 Dr. Nelson의 수술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두 분은 구강악안면외과의로서 각종 수면 관련 교과서에 실린 유명한 Stanford protocol을 완성한 대가들이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각각 65세와 7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수술을 하고 있었으며(65세 집도의와 70세 넘은 어시스트를 생각하면 지금도 당황스럽다) 수많은 논문과 교과서를 통해서만 본 이름들을 먼

던 차에 이 분야의 세계적인 사람들 곁에 있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연수중에 돌아가면 인접 타과들과 힘을 합쳐 경희대학교가 국내 수면의학을 이끌어다가 이 분야에 최고 수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도록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그간 여러 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여행도 하면서 스스로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아이들에게도 일생에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해외 연수는 한자리에 뿌리박고 있는 나무를 파내 잠시 옮겨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 동안 자리잡는 데도 오래 걸리겠지만 새로운 토양과 새로운 대지에서 그간 얻지 못했던 다른 양분을 빨아들여 내 몸속에 들이고 그 열매를 돌아와 열리게 하여 나 자신은 물론 학교와 병원 그리고 내가 가르칠 학생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발전시키는 일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생각과 시야를 넓히고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학교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Craniofacial clinic의 각 진료실 방 문앞에 걸려 있는 보드. 한 명의 환자가 들어가 있고 다양한 전공의 의료 종사자가 함께 환자를 본다.

전에서 보고 수술을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관심 있는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된다고 생각한다.

수면센터 참관기간 동안 관심은 있으나 막연하고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던 수면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Dr. Guilleminault의 PSG session을 가끔씩 참관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수면의학에서 구강외과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내에선 아직 수면의학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국보다 낮은 것 같으나 앞으로 매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



전선과의 만남, 우측으로부터 Dr. Riley, Dr. Powell. 수술이 끝나고 병원 Cafeteria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텍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이석원 교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위치한 조지아텍(조지아 공과대학)은 미국 내 공과대학들 중 4~5위권을 유지하는 명문대학으로서 1885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조지아텍의 생명공학과는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생명공학과에 이어 미국 내 2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매력적인 해외연수 학과로 내게 다가왔다. 더구나, 학과장이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생명공학자들 중 한 사람이고, 최근 치과용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조지아텍을 해외연수지로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해외연수를 위한 준비

연수 시작 10개월 전부터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우선,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2개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마음이 급해져, 단순 이메일 이외의 접촉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고, 다행히 지인을 통하여 조지아텍에 머무르고 있는 방문교수 한 분을 알게 되어 그분을 통하여 생명공학과에서 학위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연결되어, 학과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정식 이력서와 최근 논문 등을 빠른 우편으로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최초 접촉 4개월 만에 초청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이메일은 의사 타진 등 접촉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결국 정식 우편을 통한 접촉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결정적인 방법임을 이때 깨달았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더욱 녹록하지 않았다. 학과장 담당 비서가 비자 발급을 위한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5회에 걸쳐 나누어 보내어, 시간이 점점

촉박하게 되었다. 특히, 매 이메일마다 새로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여 준비하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해외연수 시작 2개월 전에 이르러서야 J1 및 가족 J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연수지 정착과 연구원 생활

6개월 전 이미 애틀랜타 에모리대학교에서 해외연수를 시작한 구강악안면외과 학교실 지유진 교수의 도움으로, 연수지 정착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집 문제가 연수지 도착 전 이미 해결되어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또한, 정착에 있어 필수적인 자동차 장만, 운전면허 취득, 살림도구 장만, 아이들 등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은 지유진 교수와 그 사모님에게 이 글을 빌어 깊은 감사를 표한다. 우리와 다른 미국 학사 일정 때문에 학기 중간에 편입된 아이들의 적응 여부가 큰 걱정거리였으나, 아이들의 적응은

예상 외로 빠르고 순조로웠다.

조지아텍에서의 연구원 생활도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나를 방문연구원보다는 방문교수로 대접해주며 아침 세미나 시 자리 배정 등 세세한 점들까지 신경 써주는 학과장이 고맙웠다. 그러나 역시 큰 대학의 명문 학과답게 연구원들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을 곧 알아챌 수 있었다. 또한, 특별한 지원 없이 대부분 연구비로 운영되는 학과와 다양한 실험실들에 대한 관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철저했다.

미국이라 하여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에 대한 교수들의 태도가 특별히 민주적이거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매우 놀라웠으며, 실험이나 논문 준비를 기한 내에 해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수가 호되게 큰 소리로 질책하며 심지어는 욕을 하는 몇몇 장면들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학과의 한국 학생이나 나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생각보다 신중하다는 것이었다. 즉, 한국인을 선진국의 국민으로 대하면서 오히려 경쟁자라는 인식하에 다소 경계하는 분위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체험할 수 있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여행을 가

능한 많이 하려 노력하였다. 아이들이 미국의 문화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인들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보호하며 가꾸고 있는 대자연을 체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되어 국립공원(national park) 위주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 위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Ken Burns의 미국 국립공원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듯이, 미국인들은 대자연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국립공원 시스템을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립공원 여행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대자연의 놀라운 풍경과 야생동물들과 식물들만은 개발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꾸어, 적은 돈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를 후손에게 시스템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독특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립공원 내에서 근사한 복장에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배지와 패치를 달고 근무하는 사람들을 레인저(ranger)라 통칭한다는 데 착안하여, 주니어레인저(junior ranger)시스템을 통해 결코 쉽지 않은 워크북과 미션을 마치면 배치 혹은 패치와 함께 레인저의 서명이 들어간 수료증서를 아이들에게 줌으

로써 자연스럽게 해당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장치들을 통하여 대자연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가치, 자신들의 길지 않은 역사, 다양한 문화, 심지어는 인디언(native American) 박해와 같은 자신들의 수치스런 과거마저도 국립공원 시스템 안에서 보존하고 있다.

연수를 마치며

어릴 적, 현재의 나처럼 방문교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경험하였던 미국은 풍족함과 넉넉함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 아버지의 연수지가 애틀랜타 소재 미국질병관리센터이었으므로, 이번 나의 연수와 더욱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미국이 더 이상 넉넉하지만은 않은 나라라는 것이었다. 아이와 어른의 시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연수를 통하여 미국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미국인들의 눈에 한국은 이제 경쟁국가로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한국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해외 연수를 마친 소감을 대신한다.

글·사진 치과보철학교실 부교수 이석원



미국의 그랜트티턴 국립공원의 모습.

알라바마 주립대학 의공학과 장기 연수를 다녀와서



Birmingham's Skyline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알라바마주 버밍햄에 위치한 알라바마 주립대학의 (생물) 의공학교실(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에 장기연수를 다녀왔다. 내가 치과대학으로 가지 않고 의공학교실을 택한 이유는 2002년에 미국 매릴랜드 치과대학에서의 1년간 연수경험이 있고, 현재의 학문은 어느 한 가지 분야 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치의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던 중 권일근 교수의 소개로 알라바마 주립대학의 전호욱 교수를 알게 되었다. 연구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논문도 많이 발표하여 심하게 끌리고 있었고, 전호욱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던 중에 전 교수 아내가 치과대학 2년 후배인 천경아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다. 세상 참 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천경아 선생 기억 속에는 나란 존재가 꽤 낯선 인간으로 기억되어 있다는 것(은근 자랑?)을 전교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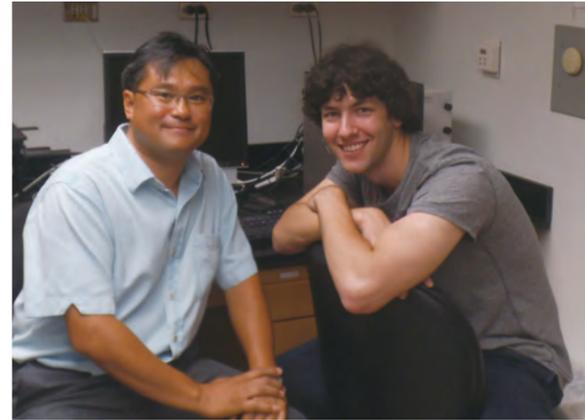
더욱이 전 선생님은 미국에서 소아치과 수련을 하고 현재 알라바마 치과대학 소아치과에서 임상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또 다른 이유는 버밍햄이란 곳을 검색해보니 내가 찾던 복잡하지 않은 조용한 곳이고 남쪽이라 날씨가 서울에 비해 따뜻하다는 것(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추위를 싫어함)이었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 이민가방에 잔뜩 짐을 채우고 피난민처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큰딸 선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별 걱정 안 했지만 아들이 이제 겨우 28개월이라서 장거리 비행이 걱정이었다. 다행히 둘째 준하가 힘들어 하기는 했지만 잘 참아주어서 디트로이트에 도착하였다. 버밍햄으로 가는 직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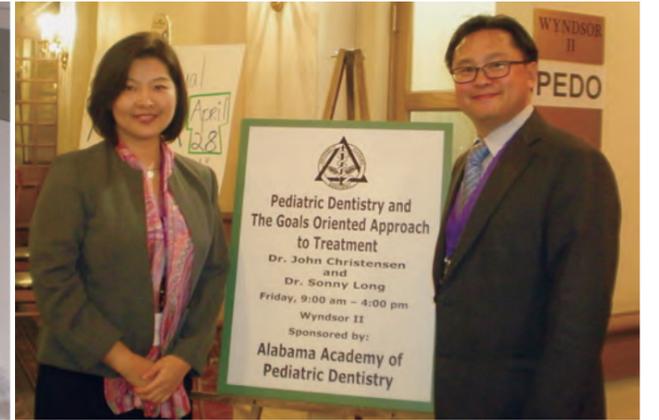
없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를 경유해야 했는데, 입국심사 때문에 디트로이트에서 짐을 찾고 심사 받고 다시 짐을 부쳐야 했고, 말쑥꾸러기 아들 관리하느라 진이 속 빠지고 말았다. 길고 긴 하루를 보내며 밤에 버밍햄에 도착하였다.

전호욱 교수와 기계공학과 김종언 교수의 도움으로 공항에서 우리 가족이 살게 될 후버(Hoover)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미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미리 인터넷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전교수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구해놓았지만, 아파트 오피스는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첫날 밤을 호텔에서 보내고 다음 날 아파트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1년간 미국에서 살아나갈 준비를 시작하였다.

내가 정착한 후버라는 도시는 버밍햄에서 차로 20분 정도 남쪽에 위치한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좋은 조용한 도시였다. 후버를 포함한 버밍햄 일대에는 한인들이 1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고, 남쪽



골재생 연구를 같이 했던 K-pop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훈남 연구원 제레미(왼쪽 사진), 천경아 선생과 소아치과학회에서(오른쪽 사진).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몽고메리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3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한인이 적은 편이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쪽으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한인이 10만이 넘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로 가서 대형 한국마켓에 들러 한 달치 식재료를 사고 한국 음식도 싣고 먹고 오곤 했다.

알라바마 주립대학 의공학교실은 nanofiber와 nanomatix gel을 이용하여 골조직재생 연구, 관상동맥질환에 사용하는 스텐트 연구, 당뇨병환자의 췌도 이식(islet transplantation)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골조직재생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하던 중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nanomatrix gel을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연구하고 있었던 치수조직 재생 분야에도 접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전 교수와 토론을 하고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치수조직 재생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번 연구는 전 교수의 아내인 천경아 선생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한참이라고 생각했던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 귀국을 했지만 이메일을 통해 연구에 대해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 알라바마주립대학에서의 실험실 실험이 끝나면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은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래저래 다른 일로 인해 매주 골프를 하지는 못해서 아직도 90대 초반에 들어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의 골프연습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목표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실천을 많이 한 부분이다. 가족 중심 사회이고 게다가 시골이다 보니, 오후에 귀가한 후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고 저녁도 매일 같이 먹고 아파트에서 둘째와 텃밭고 했던 추억들이 생각이 난다.

단어로만 표현했던 준하는 미국에 1년 있는 동안 영어가 아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미국에 가게 된 딸 선우는 미국 학교가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로 들어갔지만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바닷가에서

나이에 맞게 2학년으로 바꾸게 되었다. 1학년과 2학년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초반에 무척이나 힘들어하다가도 잘 적응해준 선우가 대견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매릴랜드 치과대학에 있는 후배인 정만교 교수 가족과 휴가를 맞춰 스모키 마운틴에 있는 캐빈으로 여행을 간 것과 전호욱 교수 가족과 기계공학과 김종언 교수 가족과 함께 했던 플로리다 주의 데스틴(Destin)이라는 밀가루 같이 하얗고 고운 모래로 유명한 바닷가에 다녀온 것이다. 이 두 곳은 기회가 되면 여행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1년이라는 시간이 연구에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추억이 되며, 그곳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은 아직도 간간히 연락을 하는 인연이 되었다.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루지는 못 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이 시간들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학교와 병원에 복귀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며 다시 한 번 미국에서의 1년을 떠올리며 하고 더욱 본분(진료, 교육, 연구)에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해준 "HELPERS" 관계자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글·사진 소아치과학교실 교수 박재홍

권영혁 명예교수 인터뷰

정년퇴임을 하신 후에도 경희대 치과병원에서 여전히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계신 권영혁·김여갑 명예교수를 인터뷰하였습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떠신지 여쭙봤지만, 그냥 도시락 먹으며 얘기하자고 하시는 모습을 통해 평소 소탈한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일제 대학원생 특화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과대학에 속했는데, 처음으로 치과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그때 전일제 대학원생 10명에 대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여러 기업체와 교수, 동문들로부터 연구발전기금 모금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다만 단발성으로 끝나고 기금의 집행이나 모금이 더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년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근황)

올해 2월에 정년퇴임 후 쉬는 기간 없이 바로 경희대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로 다시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30년동안 진료와 교육에 몰혀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싶기도 했지만, 타성에 젖어 빈둥빈둥한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쉬는 날에는 등산, 골프 등을 즐기면서 리듬을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학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으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힘들었던 일들이 아마 기억에 남겠지요(웃음). 수련기간과 군복무를 마치고 맨 처음 공직에 몸담았을 때가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희대 치과대학 1회 졸업생이었고, 1회 졸업생으로서 당연히 학교에 남아서 교직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공직 외의 다른 생각을 하지도 않고, 공직에 입문하였지요. 그런데, 처음 발령받은 직위가 불안정한 위치였고 처우가 부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비전임강사대우'라고 이름도 길고 참 이상한 직위였지요. 공직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이었지만, 동료 선후배들과의 끈끈한 정이 있어서 잘 지내었지요.

학장으로 재직중에는 우리 학교의 연구성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가장 생각납니다. 그 당시 우리 치과대학의 연구가 너무 미약한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 BK21에 지원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선정되지 못했던 것이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과대학의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특화사업이라고 전일제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책이 경희대 내에 있는 것을 알고서 본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당시 치과대학은 여러 단과대학중에서

교수님께서 후배 치과의사들이 이것만은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생들 강의시간에 치과의사가 되기에 앞서 사람이 먼저 되라고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환자에게도 단순히 진료만 하는 치과의사가 되지 말고, 환자가 정을 느끼는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는 단순히 치아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자의 마음을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정을 느끼면, 그 환자들이 의사를 다시 찾게 되고, 부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나 젊은 치과의사들이 표면적으로는 훌륭하네, 이런 인격이라든지 정이라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건강 유지 비결이 있으신가요?

건강은 타고 나는 것도 있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뇨가 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지요.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산, 골프 등을 즐기며 지내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빈둥빈둥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즐기려면 평소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하고 약간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적당한 스트레스 또는 자극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가지고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갖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글 치과보존학교실 조교수 김선영

김여갑 명예교수 인터뷰

정년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근황)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정년연장프로그램으로 병원에 오니까, 예전처럼 병원 일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는 횟수는 전보다 많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웃음). 기본적으로 생활이 바뀐 것은 별로 없고 하는 일도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월급은 줄었지만 (웃음),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과 많이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산에도 많이 가고, 시간나는 대로 테니스도 치며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장 재임시절은 아니지만, 한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치의학과장때 개교 50주년 행사를 기획했는데 제가 안을 내서 1회전국치과대학학생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10개 대학에서 26개 연세가 제출이 되었는데, 학술대회 전날 경찰이 학교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개최 여부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경찰과 협상을 해서 학술대회를 관철시켰던 것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교수님께서 후배 치과의사들이 이것만은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모교사랑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끔, 동문들을 만나면 반가와 하면서도 한편으로 대학에 섭섭하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 들어왔고, 최소한 그 목표였던 치과의사가 될 수 있게 해준 모교에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데는, 교수들의 잘못도 큼니다.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배우고 같이 생활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수들이기 때문이지요. 교수들이 자신의 교수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요,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치과의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협동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협동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치과의사의 자긍심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모교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지 비결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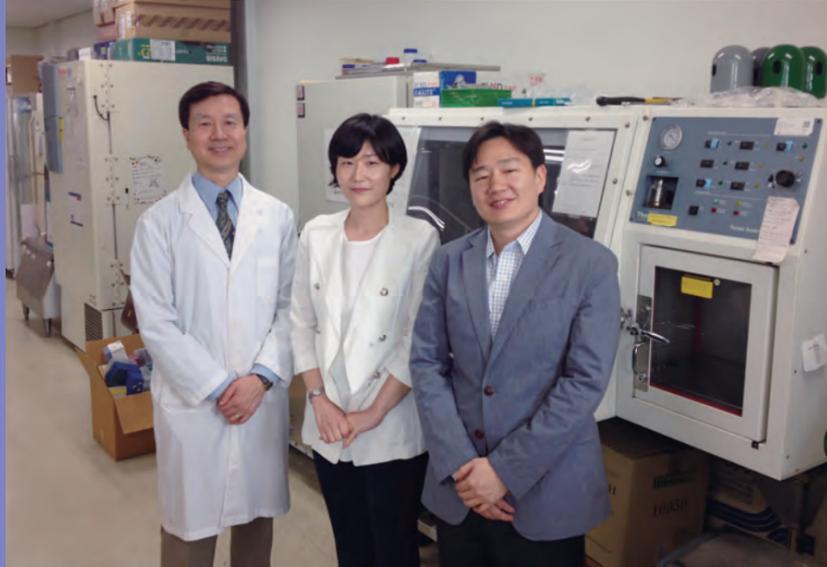
건강을 유지하게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요. 잘하지는 못해도 여러가지 운동을 합니다. 학교에 헬스장 등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이것을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잘 이용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병원 치과직원, 교수, 수련의가 의료원 전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인지 의료원 측과의 교류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의료원 내의 동아리 활동이 많으니 이런 동아리에 잘 어울려 지내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바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글 치과보존학교실 조교수 장석우

학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으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치의학전문대학원이겠지요. 학장 발령후 한 달 내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최종결정은 대학이 하지만, 학장으로서 나름 많은 노력을 했지요. 당시, 총장님과 얘기했던 것은 치의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능 잘 봤으니, 적성과 상관없이 치과대학에 가는 것 보다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가지 바탕을 가진 학생을 뽑아서 공부시켜 보자, 다양한 치과의사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지요. 개인적으로는 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대학의 교육방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장재임 시절에 치의학관의 대학신축 기공식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학장취임 후 초기 6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동문들을 만났던 일입니다. 발전기금 때문이었지만 모교출신 첫 학장이었고, 동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어느 지방에 갔더니, 지금까지 대학에서 학장이나 보직자가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한 자리에서 15명이 후원을 해주었던 기억도 나네요. 제가 학장을 할 때 임호남 교수가 학과장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도와주셨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감사해요.

악안면생체공학교실 감염체 제어연구실



왼쪽부터 이진용 교수, 문지희 조교수, 이재형 조교수

주소 치의학관 605호
 전공주임교수 이진용 교수
 전체 구성
 이재형 조교수, 문지희 조교수,
 대학원생 2명,
 Post-Doctor Scholar 1명,
 연구원 1명

치의학전문대학원 악안면생체공학교실의 감염체 제어연구실은 1994년 현재 전공 주임교수인 이진용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 부임하면서 구강미생물학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구강미생물에 대한 질병기전 및 제어로 연구영역이 확장되면서 감염체 제어연구실로 개명되었다.

감염체 제어연구실은 치주/치아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 구강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얻은 감염제어 기술을 생체조직 재생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조직공학적 연구와 병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치의학전문대학원 생체공학연구실과 융합하여 악안면생체공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체 제어연구실은 전공 주임교수님인 이진용 교수님과 2013년 3월에 새로 부임하신 이재형 교수님과 문지희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의 대학원생과 2명의 연구원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진용 교수님과 문지희 교수님은 구강미생물의 성장역제 및 백신개발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며 이재형 교수님은 systems biology 기법을 이용한 구강미생물 유전체/전사체 분석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감염체 제어 연구실의 주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무기인산염중합체의 항균작용 (inorganic polyphosphate)

Polyphosphate는 식품제조 및 유통업계에서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합물로 치주질환관련 세균에 대하여 강한 항균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실에서 처음 입증하였다.

현재 Porphyromonas gingivalis에 대한 항균기전이 여태까지 알려진 polyphosphate의 항균기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근래 polyphosphate가 Bone formation/regeneration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이 보고됨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치주염에 대한 치료와 재생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능동면역을 위한 식물백신 개발(Edible vaccine)

치주질환 원인균인 Porphyromonas gingivalis의 부착 물질인 fimbriae 유전자를 식물에 형질 전환하여 fimbriae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형질전환 식물을 섭취하면 소장에는 면역기관이 인지하고 fimbriae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여 타액이나 구강점막

을 통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형질전환된 식물을 음식처럼 섭취하면 주사형태의 면역백신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서 주사의 아픔을 피하고, 저가로 제공이 가능하여 대단위 집단 면역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수동면역을 위한 식물항체 개발

Porphyromonas gingivalis의 부착물질인 fimbriae 단백질에 대한 단일클론항체를 우선 생산한 다음, 이 항체를 생산하는 mouse 형질세포에서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클로닝한 후 식물에 주입하여 형질전환 식물로 유도하여 경작하면 이 형질전환 식물에서 항체 단백질을 발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향후 fimbriae에 대한 인간 항체 단백질을 발현하는 형질전환 식물을 개발하고, 이 식물을 경작하여 다량의 항체 단백질을 얻어 임상에 사용함으로써 치주질환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수동면역 식물백신은 능동면역식물백신과 함께 치주질환의 예방뿐만 아니라 치주치료, 재생술식 후 조직재생과정 중에 감염을 방지하고, 재생된 조직은 보전이 가능하도록 재감염을 지속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치주조직의 integrity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으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강 미생물의 유전체/전사체 분석연구

구강 내 다양한 환경 및 감염억제제에 대한 구강미생물의 유전체 발현을 비교/분석(comparative genomics/transcriptomics) 하여 감염억제 및 치료에 대한 새로운 타겟 유전자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이다.

감염체 제어연구실은 다양한 구강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특수 혐기성 배양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배양)와 호기성 배양기를 갖추고 있으며, 미생물에서부터 다양한 단백질의 정제 및 활성검정을 위하여 단백질 분리정제 장치(Column, flow pump, fraction collector), 분광분석장치(Spectrophotometer-absorbance/fluorescence/luminescence), 외래 유전자를 미생물 내로 도입하기 위하여 유전자 전기도입기(Electroporation system)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유전체/전사체 분석연구를 위하여 UCLA 대학의 컴퓨터서버를 공동연구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분석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내 다른 연구와의 유



기적 협력을 위하여 서버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기초치의학 연구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이진용 교수에게 치의학을 수학하고 있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조언과 임상과 기초의 중계연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치의학에서 임상수기에 대한 숙련도는 치과의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할 것이 치의학 질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강미생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일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교육과 병행해서 임상에 대한 구강미생물을 늘 연계해서 생각하면 보다 효과적인 임상치료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감염체 제어연구실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기초의학교실은 학생에게 기초연구에 대한 경험을 지원할 것이며, 임상의들과는 임상/기초 중계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초의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신 와중에도 실험실 탐방에 시간을 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실험결과와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글·사진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조교수 김정목

책 속에서 찾는 힐링

당신에게 추천하는 색다른 힐링 BOOKS



캐나다 알버타주 밴프 국립공원

사람들 모두가 지치고 아파하고 있었나 보다. 언제부터인가 아우성처럼 너도 나도 힐링을 외치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들을 노린 힐링 처방전들을 난발하고 있다. 음식, 여행, 음반, 도서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힐링의 물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모두들 전문가를 자처하며 자기 방식대로 치유하라고 가르치고만 있다.

대형 서점가를 돌아보니 힐링이라는 이름을 내건 서적이 수백 권도 넘게 넘쳐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 어쩌면 매스 대신 펜을 들고 무뎠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일이다.

책을 많이 읽는 한 소설가에게 물어 보았다. 힐링에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정답이 나왔다.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

지 않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당신처럼...'이라고 말하는 책.

힐링을 위한 힐링이 아니라 진솔한 애기로 읽는 사람을 보듬어 주는 책. 그것이 '힐링 북' 아닐까! 혼자서 이렇게 되뇌어 본다.

여기에 문화계 사람들이 추천하는 자신만의 힐링 북을 소개한다.

무엇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리는 것

페터 빅셀은 스위스의 이외수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유명한 소설가이다.

주로 상상력과 유머가 버무려진 흥미로운 소설을 많이 발표하는 작가인데, 이 책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산문집이다. 그러나 사소하지만 늙은 작가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들이 담담하

게 기술되어 있다. '평생 정리를 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 페터 빅셀 지음, 전은경 옮김, 푸른숲 2009

애썼던가.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정리된 방을 보며 지나치게 손을 댄 느낌이었다. 우리는 무질서만이 아니라 질서 때문에 환경을 훨씬 더 파괴할 것이다.

환경의 동의는 얻지 않는 질서. 혹 내가 평생 잘못된 것을 추구한 것은 아닐까. 정리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라 무질서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게 아닐까. 편안하고 질서 있는 무질서.'

또 한 번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동물원에서 동물 이름을 가르치려 애쓰는 부모와 이름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동물들 그 자체에 감탄하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이름을 붙여 부르면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목적에 사로잡혀 무엇을 기다리지 않고, 저 너머로 떠오를 무지개를 기다리며,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있는 그대로 기다리는 작은 기쁨. 이 책이 나에게 그것을 추천해 주었다.

소설가 최정화 (2012년 창작과 비평 등단)

인생이란 자신의 향기를 찾아 나선 긴 여행

이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간단하다. 오직 자신만의 향기인 '시그니처 향수'를 만들고 싶었던 저자가 그 향기를 찾아 긴 여정에 오르는 이야기이다.

힐링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일에 아무런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저자의 태도 때문이었다.

힐링이 대수인가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어 있으면 아픈지도 슬픈지도 모르는 신세계가 있지 않은가.

어떤 결과물을 내뿜을 생각만 하니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온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이 만들 향수의 원



『지상의 향수, 천상의 향기』 셀리아리틀턴 지음, 도희진 옮김, 뮤진트리 2009

료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기꺼이 길을 떠난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관광지로 기억될 곳들이 저자에게는 향기로 기억된다. 향수의 발상지 프랑스 그라스, 강렬한 장미의 유혹 터키, 아이리스 향으로 가득한 이탈리아 토스카나……. 그가 말하는 이 세상의 향기는 아마 누구보다 진하고 풍부하지 않을까!

그리고 덤으로 안 인생의 지혜 하나. 화학재료를 이용해 만든 향수는 누구에게 뿌려도 똑같은 향을 내지만, 천연재료로 만든 천연 향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향을 낸다는, 아름다운 진리.

프리랜서 기자 김옥

사랑한다 말하기

5월 가족의 달이면 늘 쏟아져 나오는 가족을 사랑하자는 그런 류의 도서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책보다 진솔하게 와 닿았던 것은, 우리 눈에 성공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명사들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문열, 주철환, 박지성, 김영세, 정명화 등 15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읽다보면 묘한 위로를 받게 된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가정은 참으로 모순된 감정들이 충돌하는 복잡한 공간이다.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무지껍고 벗어나고 싶은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그 따뜻한 동지의 체온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자신의 분야에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명사들의 뒤에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가족들의 역할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금 내곁에 있건,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건 내 주위를 맴도는 안정적인 행성처럼 별과 달이 되어주는 가족의 존재가 오늘도 나를 치유해준다.

드라마작가 손혜지 (KBS드라마작가)



『아직 하지 못한 말』 안길수 지음, 중앙북스, 2011

글 악안면생체공학교실 조교수 문지희 사진 악안면생체공학교실 조교수 이재형

2013학년도 발전기금 입금 (2013. 05. 20 기준)

1억 원 이상	안영자 이창진
7천만 원 이상	(주)신흥 광약훈
5천만 원 이상	이재광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3천만 원 이상	김학찬 장지우 전요한 치과대학대전지역동문회, (주)비스코덴탈아시아
2천만 원 이상	고광수 권영혁 김성기 김용래 김은철 박준봉 오구환 (주)지-씨코리아
1천만 원 이상	공희정 김광휘 김규남 김성욱 김승운 김여갑 김영훈 김용준 류동목 문정기 박양제 박영국 박주연 박태용 백두흠 서광원 송요선 신용범 신한식 이광섭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상복 이윤 이정우 이한우 장상건 장지현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영철 한만형 한정희 (주)덴티움, 굿월치과병원, 경희치과병원, 경희치과의원, 오스텝임플란트(주), 오우대학, 참조은치과병원, 치과대학2회, 치과대학3회, 치과대학5회, 치과대학6회, 치과대학9회, 치과대학12회, 치과대학13회, 치과대학15회, 치과대학19회, 치과대학22회, 치과대학수원지역
8백만 원 이상	김광철 김세영 김인화 이진용 정규림 최기운
5백만 원 이상	고광준 권극록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중환 김관식 김필수 김향경 김형찬 박기범 박능석 박도양 박상혁 박승훈 박영철 박용덕 박재홍 박태용 박희경 백동준 변욱 신명 신제원 양승춘 우이형 윤옥병 이건영 이근주 이근혁 이명성 이상래 이상철 이상호 이현우 임호남 장건택 정용식 정재규 조재민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유진 지찬동 최경규 최근락 최성백 최홍석 최유진 최인 최호근 허성운 허익 홍정표 황의환 황재상 (주)악어미디어, 굿월치과의원, 치과대학16회
3백만 원 이상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근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권호진 김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진오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회 남종현 마경화 민병순 박갑용 박남수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진 박성동 박수배 박창건 박희찬 백영완 부용철 성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호 신완용 신의중 안민호 안희진 양영환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섭 오성산 오승훈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성희 유신중 유영선 유용균 유충현 유형열 윤덕상 윤인중 이규원 이건욱 이광희 이금호 이동식 이만섭 이백수 이상태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중태 이진표 이창재 임성빈 임성수 임수빈 임인학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중혁 정창권 정철민 정충주 제한봉 조남성 조인교 조세종 조인교 조정근 조태희 조한국 조호구 주성숙 천강정 최병환 최부병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최호영 한승완 한용환 한훈 홍성태 홍영안 김정수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최신치과
2백만 원 이상	권기열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명진 감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은 김원경 김인수 김재승 김정우 김정희 김종규 김지태 김춘진 김홍모 나금균 류중균 모규업 문재룡 문항진 박노희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재현 백종은 손일수 신동진 신현택 오인종 유경민 유재홍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훈 이수인 이은준 이정민 이종규 이준열 이창진 이필제 이해승 인영미 임태수 장수일 정주성 조민우 조승제 허정상 허정선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치과대학1기동문,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 전공의 일동
1백만 원 이상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고철수 곽춘길 구국본 구분룡 구자경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중선 김경용 김광휘 김귀원 김동규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성길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영일 김용구 김원경 김재구 김재오 김재일 김재철 김정학 김종호 김종중 김진호 김철중 김충길 김태형 김택청 김해근 김현호 김혜경 김흥기 나성식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역 류경희 류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문은영 민호기 박내길 박동원 박두중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현 박상훈 박성범 박순건 박순정 박영수 박영주 박은기 박일해 박재석 박정용 박철제 박철성 박현 박현석 배영수 백상규 백영걸 변태진 사영철 서경숙 서남영 서운원 성락진 송국현 송민재 송은면 송재만 송근배 신동건 신동우 신혜연 안광식 안근국 안병구 안병두 안장원 안재희 안형준 어수철 엄인성 오세운 오정진 오정환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원미영 유선영 유인영 유주현 윤경도 윤동호 윤두근 이근중 이공훈 이광재 이교용 이도규 이병국 이병도 이병태 이상은 이상희 이선희 이성철 이세중 이세춘 이승춘 이승택 이영규 이영근 이영석 이영식 이원규 이원섭 이원화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정철 이정현 이종인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화연 이흥기 이희정 임기효 임길웅 임상욱 임중성 임천택 장영빈 장원중 장정태 장철민 장현주 장훈 전석열 전장환 전중혁 정관희 정대현 정선모 정용복 정인교 정주성 정철 정희일 조동석 조병도 조성국 조성열 조영진 조의현 조익주 조정현 조진호 지용기 지정호 지준순 차덕선 차애경 채영원 천무철 최명애 최상돈 최승규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완침 최원재 최인식 최중우 최중실 최천영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봉석 한정희 한중수 한창규 한휘철 함동선 허귀남 현원식 홍선희 홍진표 황용규 구미공단예치과병원, 뉴욕BNS치과의원, 서산예치과, 세영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웰니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함께하는치과
1백만 원 미만	강남현 강대인 강승규 강주성 강철규 강혜령 강혜성 고건호 고영훈 고일혁 고창배 고현 공선식 공순현 공준하 곽용훈 권구현 권순민 권정은 금구석 금미연 김경선 김광식 김교철 김남중 김규태 김남준 김대기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배경 김보균 김보라 김보선 김상균 김상우 김석용 김성원 김승일 김승일 김시석 김시원 김영기 김영덕 김영관 김영택 김윤희 김일환 김장욱 김재수 김정욱 김중현 김창용 김철순 김태연 김학렬 김현경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나영민 노대현 노은희 류창수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희현 민관순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금출 박기현 박성규 박성규 박수정 박송 박용호 박원규 박재춘 박준수 박지혜 박창훈 박춘배 반태환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진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재승 서찬호 소웅섭 손미연 송성국 송현우 신강섭 신동렬 신용문 신재창 양경돈 양광모 여병영 오나희 오승교 오승환 오우리 오정란 오정환 오주영 오현주 우승철 원현두 유용재 유지연 유지훈 유진석 유하균 유희승 윤성수 윤여진 윤원용 윤용섭 윤인탁 윤현주 이대승 이동현 이석원 이성만 이수미 이수영 이수욱 이시원 이연수 이영희 이윤정 이은권 이은만 이을재 이인석 이정교 이정행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창규 이채숙 이태희 이한주 이현우 이현경 이현식 이혜영 임경석 임병진 임진혁 장영명 장영배 장예진 장영준 전성근 전영신 전찬덕 정남희 정민수 정성민 정성진 정연진 정연진 정은주 정의산 정준호 정지향 조규석 조영주 조윤숙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병준 최성연 최승모 최승현 최창규 최현용 최호영 최희철 하지용 하지양 한기협 한동인 한무현 한수희 한혜숙 홍동희 홍해룡 황동현 황운태 황선달 황지영 모마치과, 성모치과, 연수준치과의원, 프랜드치과의원

동문회 소식

- 2012년 9월 7일 종합진료실 교육환경 개선 기념식(병원3층 종합진료실)
- 2012년 9월 12일 2차 이사회(동보성)
- 2012년 9월 21일 고향치전(노천극장)
- 2012년 10월 22일 41회 동문 동창회 임회식(버드호프)
- 2012년 11월 15일 경희인의 밤(롯데호텔)
- 2012년 11월 22일 정기총회(동보성)
- 2012년 12월 1일 CDSA 창립 40주년 행사(프리마 호텔)
- 2013년 1월 9일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7기 이상호 동문 공로 상 수상
- 2013년 1월 15일 이사금 발간
- 2013년 2월 16일 1회 권영혁교수, 김여갑교수 정년퇴임
- 2013년 2월 20일 학생회 대표 간담회

동문회 경조사

- 2012년 9월 2일 8회 홍정표 차애경 차남 결혼
- 2012년 9월 4일 최부병 전학장님 별세
- 2012년 9월 8일 10회 나금균 장녀 결혼
- 2012년 9월 22일 16회 이정준 부친상
- 2012년 9월 24일 7회 이재광 부친상
- 2012년 10월 9일 5회 박준봉 치정원장님 병모상
- 2012년 10월 16일 11회 장훈 별세
- 2012년 10월 24일 13회 유용균 부친상
- 2012년 10월 27일 8회 송요선 장녀 결혼
- 2012년 10월 27일 14회 한광렬 모친상
- 2012년 10월 29일 6회 이태수 부친상
- 2012년 12월 11일 7회 정철민 장모상
- 2012년 12월 28일 10회 정창균 부친상
- 2013년 1월 20일 5회 문윤식 부친상
- 2013년 1월 25일 15회 손신영 모친상
- 2013년 1월 27일 6회 오대환 부친상
- 2013년 2월 17일 16회 안기동 부친상

